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MY DARK VANESSA

가제 : 또 다른 나

저자 : Kate Elizabeth Russell

출판사: Fourth Estate

발행일: 2020년 초

분량 : 390 페이지 (프로포절 상태)

장르 : 심리소설



★ 수백 만 달러 규모로 본 소설 포함 책 두 권 북미 지역 pre-empt 출판 계약 체결 / 수십 만 달러 규모로 영국, 영연방 pre-empt 출판 계약 체결 / 노르웨이 pre-empt 판권 계약

★ “읽기 힘든 책이지만 내려놓기는 더 힘든 책. 치밀하게 구성된 다이너마이트 같다” – 스티븐 킹

‘미투(Me, too)’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보다 힘과 권력이 많은 사람에게 과거에 당했던 성폭력을 고백하는 여성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한 2017년, 한 호텔 프런트의 안내원으로 일하는 바네사는 짧은 점심 시간에도 휴대전화를 놓지 못 하고 어느 여성의 트위터를 계속 새로고침한다. 10여 년 전 고등학생일 때 학교 영어교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백한 그녀의 글은 반나절 만에 수만 명이 ‘좋아요’를 누르고, ‘힘내라, 용기 있는 행동이다, 지지한다’는 응원 댓글이 셀 수도 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바네사가 샌드위치를 한 손에 들고 새로고침을 누르는 그 순간에도 새로운 댓글이 나타날 정도였다. 출근할 때부터 이 폭로 글에 바네사의 온 정신이 쏠린 이유는 글쓴이가 치욕스러운 일을 겪었다고 밝힌 고등학교가 자신의 모교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바로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이제 60세가 넘는 제이콥 스트레인이란 교사는 바네사가 열다섯 살이던 2000년부터 꽤 오랜 세월 ‘연인’이었기 때문이다.

제이콥이 어린 여학생에게 성적으로 접근했으며 몸을 만지려 했다는 폭로가 세상에 알려진 날, 바네사는 제이콥에게 서둘러 전화부터 걸었지만 그는 답이 없었다. 바네사가 그와 처음 만난 것도 17년 전인 고등학생 시절이었고,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 이어져 왔다. 스물한 살 때까지도 바네사는 그와 함께 살고 싶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기겁하며 조용히 달래는 제이콥의 반응에 극심한 분노를 느꼈던 것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남자친구도 적지 않게 생겼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다. 차츰 드물어졌지만 끊어지지 않는 제이콥과의 연인 관계는 20대의 어느 날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다는 제이콥의 선언으로 중단되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후로도 오랜 연인들처럼 늦은 밤 통화를 하며 바네사가 아직 고등학생이었을 때 함께 했던 시간을 함께 이야기하곤 했다. 바네사는 그 시절 제이콥과 함께 했던 시간의 일부가 전혀 떠오르지 않아 당혹스러울 때마다 그에게 전화를 걸어 싹둑 잘려버린 것 같은 기억을 그에게 채워달라고 요구하곤 했다. 기숙사 생활을 했던 시절의 바네사는 친구가 많지 않았고, 눈에 띄는 학생도 아니었는데 제이콥은 바네사의 글이 너무 마음에 든다며 처음 듣는 칭찬을 쏟기 시작했다. 제이콥은 바네사를 ‘마침내 만난 소울메이트. 내면이 쌍둥이처럼 닮은 사람,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자신이 쓴 글처럼 느껴지는 글을 쓰는 아이’라 표현했다. 평생 찾던 소울메이트를 만났는데 우연히 십대 소녀였을 뿐이라고 설명하던 제이콥은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여드름투성이 또래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의 몸매와 외모에 노골적으로 점수를 매기고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무작정 달려드는 것이 영 거슬렸던 바네사는 자신이 앉아 있었던 책상에 가만히 얼굴을 대고, 손에 직접 쓴 시가 적힌 종이를 쥐어주던 제이콥에게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나이가 꼭 30세 더 많은 45세라는 것도 웬지 마음에 들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떨림은 첫 키스를 시작으로 육체적인 관계로 이어지고, 두 사람은 바네사의 기숙사며 교실과 붙어 있던 제이콥의 사무실에서 수도 없이 사랑을 나누었다. 바네사에게 제이콥은 첫사랑이자, 이전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힘, 자신의 작은 육체에 다 큰 성인 남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한 사람이었다.

제이콥을 가해자로 지목한 폭로를 ‘거짓말’이라 단언한 것도 그런 이유였다. 바네사는 제이콥이 그 아이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며 자신은 부끄러운 짓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어쩌다 어깨를 살짝 건드린 정도의 접촉에 과도하게 반응한 것이라며 길길이 날뛰길 바랐다. 하지만 겨우 통화가 된 그의 반응은 의외였다. 억울해하기보다 당장 학교에서 내쫓기게 될 것을 더 걱정하고 있었다. 그제야 바네사가 마음 속으로 자연스러웠다고 생각해온 자신의 삶이 어쩌면 처음부터 심하게 뒤틀리고 왜곡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제이콥은 지금껏 굳게 믿어 온 것처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연인일까? 아니면 사리판단이 완전할 수 없는 어린 소녀를 정신까지 완전히 지배하며 원하는 욕구를 채우려 했던 무서운 범죄자일까? 제이콥과의 관계가 정리된 후에도 연애는 물론 일상생활 전체에 그의 그림자가 내내 드리워져 있었음을 깨달은 바네사는 이유모를 불안감에 시달리다 심리상담사의 상담을 받기 시작하며 17년 전의 일을 다시 꺼낸다. 트라우마로 얼룩진 기억, 성적 학대가 남긴 형언할 수 없는 상처를 너무 늦게 깨달은 바네사를 통해 과연 어디까지, 무엇을 ‘합의에 의한 관계’로 정의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하는 특별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케이트 엘리자베스 러셀(Kate Elizabeth Russell)은 캔자스 대학교에서 문예창작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9년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예술석사 과정을 마쳤다. 「미드어메리칸 리뷰(Mid-American Review)」, 「쿼터리 웨스트(Quarterly West)」 등에 소설과 비소설을 기고해 왔으며 최근 푸시카트 상(Pushcart Prize), 베스트 오브 더 넷(Best of the Net) 수상 후보에 올랐다.

제목 : THE FORGOTTEN VILLAGE

가제 : 지워진 마을

저자 : Lorna Cook

출판사: Avon

발행일: 2019년 4월 4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역사/로맨스 소설



★ 수십 만 달러 규모로 독일 pre-empt 판권 계약

★ 2차 대전 시기 군사 훈련지로 지정된 영국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을 우연히 알게 되어 추적에 나선 사람들 - 미스터리 요소가 가미된 흥미롭고 감동적인 2부작 시리즈

시들해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는 마음으로, 멜리사는 영국에서 나고 자라면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도셋(Dorset)으로 향한다. 댄이 처음 도셋을 여름 휴가지로 제안할 때만 해도 거기서 뭘 할 수 있을지 떠오르는 것이 없어서 조금 망설였지만, 두 사람이 머물기로 한 타인햄이 ‘유령 마을’로 불린다는 것이 꽤 흥미롭게 다가왔다. 2차 대전 시기인 1943년, 영국군이 타인햄을 훈련 장소로 지정하면서 마을을 통째로 다 비워줘야만 했던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면 꼭 돌아와서 다시 이웃으로 살자고 약속했지만, 불과 몇 년 후 종전이 선언된 후 타인햄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결국 텅 비어버린 마을은 어떤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을까? 멜리사는 기대감에 부풀어 타인햄에 도착했지만, 희망은 곧 절망으로 바뀐다. 도착 직후부터 서핑에 푹 빠진 댄은 새벽부터 바다로 달려가 밤늦게야 돌아왔고 수영도, 서핑도 전혀 즐기지 않는 멜리사가 그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는 아랑곳하지도 않았다. 습도가 높아 끈적하고 무더운 낮 시간 동안 덩그러니 남은 멜리사는 1년도 채 만나지 않았지만 뭔가 단단히 잘못된 댄과의 관계가 이제는 되돌릴 수 없게 되었음을 느끼며 낯선 마을을 특별한 목적 없이 거닌다. 우연히 마을에서 가장 거대한 저택 ‘타인햄 하우스’에 발길이 닿은 멜리사는 커다란 현관 앞에서 갑작스러운 탈수 증상에 잠시 의식을 잃고 뜻밖의 인물에게 신세를 진다. 며칠 전 신문에 보았던, TV에 출연하여 영국의 역사를 소개하는 방송인 가이 카메론이었다.

‘유령 도시, 공식적으로 다시 사람들에게 문을 열다.’ 멜리사가 기억하는 건 지역 신문 1면에 난 이 기사 제목이었다. 영국군이 강제로 몰수하다시피 했던 이 작은 마을이 70여 년 만에 공식적으로 일반인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으로 다시 개방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이었다. 리본을 자르고 지역 관계자가 축하 인사를 하는 행사는 TV 역사가로 알려진 가이 카메론이 참석하여 진행한다는 이야기도 함께 실려 있었다. 사실 멜리사는 타인햄 하우스로 향하기 전에 마을 광장에서 한창 진행중인 기념행사를 몰려든 사람들 어깨 너머로 살짝 보았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 조용히 지나쳤다. 행사장의 작은 무대 위에서 리본을 자르던 그 방송인이 띄약벌 아래 눈 앞이 흐려진 멜리사의 눈 앞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다. 휴대전화 신호도 거의

잡히지 않는 외딴 곳이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어서 꼼짝없이 멜리사가 다시 의식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준 가이는 얼마 후 겨우 눈을 뜬 멜리사에게 사실 타인섬 하우스는 할머니가 하녀로 오랫동안 일했던 곳이라 자신에게는 특별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가이의 도움으로 다시 기력을 되찾은 멜리사는 가이가 할머니에게 전해 들은 타인섬 하우스의 주인 부부, 베로니카와 알버트 경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된 집안 곳곳을 둘러보다 사진 한 장을 발견한다. 강제 이주 명령이 내려진 1943년 12월이라는 날짜가 선명히 남아 있는 그 사진에는 가이의 할머니 애나가 모시던 그 부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저 카메라 앞에 어색하게 서 있는 사람들로 보고 지나칠 수 있는 사진 속 부부의 모습에서 멜리사는 어딘가 꺼림직한 느낌을 받는다. 남편의 팔에 안겨 있는 베로니카 부인의 두 눈에는, 어색함으로 치부할 수 없는 감정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극심한 두려움, 공포였다.

가이와 멜리사는 노환으로 병상에 누워 있는 애나에게 자초지종을 듣게 된다. 모든 주민이 한꺼번에 이주하기로 한 전날 밤, 마을 유지이자 대표였던 앨버트 경이 베로니카와 함께 광장에 모인 주민들 앞에서 연설을 했었다. 그리고 다음 날 모두가 예정대로 마을을 떠났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이 세 명이나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밤 사이 갑자기 사라진 사람은 바로 앨버트와 베로니카, 그리고 앨버트의 남동생 프레디였다.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애나가 굳게 입을 다문 가운데, 강렬한 호기심을 느낀 가이와 멜리사는 실마리를 찾기 위해 타인섬 하우스를 다시 찾았다가 열쇠 하나를 발견한다. 하인들이 머물던 저택 지하 공간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에 마련된 창고 열쇠였다. 영국군이 마을에서 훈련은 했지만 집 안까지 들어오지는 않아서 수십 년간 사람의 손길이 한 번도 닿지 않은 창고의 문을 연 두 사람은 믿기 힘든 광경과 마주한다. 사람의 뼈가 분명한 유해가 말쑥한 정장을 걸친 채 나타난 것이다.

술만 먹으면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앨버트 경은 이성이 마비될 때마다 아내를 괴롭혔다.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던 베로니카는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앨버트 경의 거짓말에 속아 그의 아내가 된 후에야 남편이 자신을 연인과 떼어놓기 위해 다 꾸민 짓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대들거나 부부간의 불화를 드러내는 것이 금기시되던 시절이라 남편의 정서적, 육체적 폭력을 말없이 참고만 있었던 베로니카의 실상을 다 알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가이의 할머니 애나였다. 멜리사와 가이는 베로니카가 갈수록 포악해지는 앨버트 경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타인섬 주민 전체가 이주하기로 한 전날 밤, 애나의 도움으로 혼자 도망가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그러나 집을 떠나기 직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불쑥 찾아와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바로 베로니카가 결혼 전 진심으로 사랑했던 연인이자 앨버트 경의 남동생 프레디였다. 혼란스러운 역사의 틈 속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살인 사건은 마지막까지 흡입력 있게 전개된다. 시리즈 2편 <THE FIELD OF LOST MEMORIES>는 2020년 초에 발행될 예정이다.

<저자 소개>

로나 쿡(Lorna Cook)은 데일리 메일과 AP 통신의 여러 잡지에 글을 기고한 경력이 있으며 홍보업계에서도 일했다. 현재 잉글랜드 동남부에 살면서 글을 쓰고 있다. 위 소설이 데뷔작이다.

제목 : THE ASH DOLL

가제 : 재투성이 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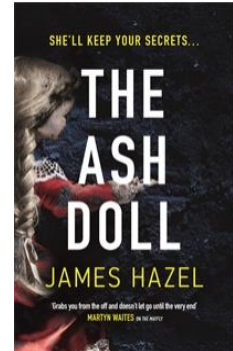
저자 : James Hazel

출판사: Zaffre

발행일: 2018년 9월 20일

분량 : 432 페이지

장르 : 범죄 스릴러 소설



★ “섬뜩하고 위대하다. 첫 페이지부터 긴장하게 만들고 결말을 알게 될 때까지 계속 그 긴장감이 유지되는 소설” – 『His First Lie』의 작가 마크 힐

★ “흡입력 있고, 복합적이고, 몰입하게 만든 이야기” – 『Pendulum』의 작가 애덤 헨디

전쟁과 가정폭력, 학대로 상처 입은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고 다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 영국 최대규모의 자선단체 ‘엘리아스 아동재단’이 직원도 몇 안 되는 작은 온라인 매거진 「리얼 바이트」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재단과 재단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는 주장이었다. 잡지사의 변호를 맡은 찰리 프리스트는 하나 같이 괴짜에 개성 만점이지만 일하는 실력은 든든한 팀원들과 함께 재판을 준비하며 이 거대한 재단의 높은 쿂대를 확 꺾어버릴 수 있으리라 자신한다. 「리얼 바이트」가 보도한 내용이 한 치도 틀리지 않은 진실임을 밝혀줄 핵심 증인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진술을 하기로 한 목격자 시므온이 의문의 메시지를 남기고 재판 당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찰리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인지한다. 연락이 두절된 시므온은 결국 시체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찰리의 목표는 승소가 아닌 세상에 드러나지 말아야 할 더러운 비밀을 지키기 위해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은 살인자를 찾는 것으로 전환된다.

작가 James Hazel의 데뷔작 『THE MAYFLY』에서 다중인격장애의 하나로 알려진 해리성 장애에 시달리면서도 유능한 변호사로 활약하는 독특한 인물로 처음 소개된 주인공 찰리는 시리즈 두 번째 작품인 이 소설에서 다시 한 번 정신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밝히기 위해 불독처럼 끈질긴 추적을 벌이며 독자들을 탐욕을 채우기 위해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자들의 소굴로 데려간다. 찰리 못지않게 매력적인 주변 인물들이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음모가 겹겹이 싸여 끝까지 책을 손에서 놓을 수 없게 만드는 스릴러 소설이다.

「리얼 바이트」는 현재 문을 닫은 엘리아스 아동재단의 터키 사무소가 자선기금을 빼돌려 터키 북부에서 활동하는 테러리스트 단체 ‘자유민중의 군대’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폭로했다.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재단 창립자이자 CEO인 알렉시아 엘리아스가 이런 사실을 다 알고도 조용히 입을 다무는 조건으로 그 테러 단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라는 것이 매거진 측의 주장이었다. 알렉시아는 말도 안 되는 허위보도라고 일축하며,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힘써온 자신을 부패한 권력자로 치부하여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으니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나 찰리는

터키 사무소에서 자선운동가로 일하면서 이 모든 지저분한 뒷거래를 낱알이 확인하고 용기를 내어 직접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시므온을 찾아냈다. 시므온이 재판에 출석하여 직접 진술한다면 알렉시아가 세상에 알려진 이미지와 전혀 다른 두 얼굴로 살아왔으면서도 뻔뻔하게 억울하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 직전, 찰리는 ‘도저히 더는 못 하겠다’며 겁에 질린 시므온의 채팅 메시지를 받는다. 어떠한 설득에도 원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황급히 채팅방을 나가버린 시므온은 그 때부터 연락이 닿지 않고, 이상한 낌새를 느낀 찰리는 그가 안전 가옥까지 얻어서 스스로 신변을 보호해야 할 만큼 불안에 떨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서둘러 찰리와 동료들은 그 임시 거주지를 겨우 찾아내지만 이미 떠난 상태였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도 난방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황급히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겼음을 짐작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행방을 파악하기도 전에 가장 반갑지 않은 소식이 전해진다. 시므온이 죽은 채 발견된 것이다. 엘리아스 재단 측의 소행임을 직감한 찰리는 명확한 증거를 찾기 위해 재판 연기를 신청하고, 재단은 기다렸다는 듯 피고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지연 전략을 펼친다며 강력히 항의한다. 그럴수록 의혹이 더 짙어진 찰리는 무엇을 숨기기 위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짓까지 저지르며 시므온의 증언을 막으려 했는지, 모든 진실을 밝혀내리라 결심한다. 그러나 시므온의 죽음은 시작에 불과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시체로 발견되고, 재단이 얽힌 범죄가 아주 오래 전 벌어진 의문의 실종 사건과도 연결 고리가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지만 찰리의 조사 역시 갈수록 험난해진다. 찰리를 줄곧 괴롭혀 온 해리성 장애는 현실과 망상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엘리아스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복수심에 앞뒤 가리지 않는 여기자까지 등장하여 찰리와 동료들의 수사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과연 찰리는 한정된 시간 안에 거미줄처럼 얽힌 거대한 음모와 범죄 집단의 정체와 행각을 모두 밝혀낼 수 있을까? 1989년 추운 겨울, 데빌스 포인트의 인적이 끊긴 절벽 구석에서 발견된 피투성이 소녀는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진실에 다가갈수록 찰리와 동료들의 신변을 위협하는 불길한 일들이 이어지지만, 영국 경찰청에서 형사로 일했던 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위협들이 진실을 덮으려는 범죄자들의 발악임을 인지하고 더 깊이 파고든다. 시므온이 진술하려 했던 것이 이번 소송사건과 관련된 일을 넘어 더 많은 비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찰리는 엘리아스 일가가 수 대째 별장으로 이용해 왔다는 노퍽 해안의 저택을 찾아가고,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잔혹한 아동 학대의 정황을 발견한다. 자신의 고질적인 병 때문에 의혹과 거짓말, 진실의 모호한 경계를 구분하기 힘들어진 찰리는 형사 시절 가장 든든한 동료였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과 같은 병에 시달리다 연쇄살인범이 되어버린 동생을 찾아가 도움을 구한다. 갖고 싶은 것을 손에 넣기 위한 탐욕스러운 자들의 채워질 줄 모르는 욕심과 그 진실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의 싸움이 다채로운 등장인물들을 통해 치밀하게 짜인 이야기로 전개된다.

<저자 소개>

제임스 헤이즐(James Hazel)은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업 분야의 소송과 고용법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변호사로 일하다가 범죄학을 향한 오랜 흥미를 토대로 범죄 스릴러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데뷔작 『THE MAYFLY』는 다섯 개 대륙에 판매되며 큰 호평을 받았다.

제목 : LARK SONG

가제 : 종달새의 노래

저자 : Jane Bailey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8년 6월 5일

분량 : 350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일반



★ “한 평범한 가족이 상실감을 이겨내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고 어떠한 불안에 시달리는지 보여주는 따뜻하고 매력적인 이야기” – 베스트셀러 『The Unlikely Pilgrimage of Harold Fry』의 작가 레이첼 조이스

★ “어두운 배신이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러브스토리. 그럼에도 재미 있고, 따뜻하고, 사려 깊고, 로맨틱하다.” – 『My Weekly』의 작가 카렌 바이름

대학에 들어가서 좋아하는 공부를 실컷 해보기도 전에 덜컥 임신을 하는 바람에 주부가 된 프레야는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다시 복학을 하려고 했지만, 그 계획은 17년 동안이나 이루어지지 못한다. 첫 아이 월을 돌봐 주기로 약속한 엄마가 얼마 뒤 세상을 떠났고, 하는 수 없이 월을 키우면서 남편 루벤을 뒷바라지하는 동안 둘째 짝이 태어났다. 그리고 다시 한숨 돌리려고 했을 때는 막내딸 소피가 태어났고, 2년 전 루벤마저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프레야는 혼자 세 아이를 키우는 일에 인생을 모두 바쳤다. 열일곱 살, 열한 살, 여섯 살. 나이도 제 각각인 세 아이들은 연약하지만 굳건한 프레야 덕분에 아빠가 없는 삶에 어느 정도 적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프레야는 다 알고 있었다. 한창 롤 모델이 되어 줄 성인 남성이 필요했던 나이에 아빠를 잃은 월은 이 모든 불행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든든하게 기댈 버팀목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신경질적이고 짜증이 많은 아이가 되어버렸고, 둘째 짝은 외모, 특히 체중 관리에 과도하게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꼬맹이 소피는 아주 어릴 때부터 걱정이 많고 작은 일에도 불안에 떠는 예민한 아이였지만, 루벤이 죽은 뒤로 속눈썹을 제 손으로 모조리 뽑아버리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다. 프레야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폭탄 셋을 안고 사는 듯한 심정으로, 너무나 불안하고 힘들지만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현실을 이를 악물며 견뎌왔다. 갑자기 비가 쏟아진 어느 날, 낯선 사람이 다정한 손길을 내밀었을 때 반갑기보다 날을 바짝 세워 경계심을 앞세운 것도, 슬픔과 스트레스를 너무 오랫동안 홀로 삭히고, 애써 지워버리며 살아왔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하는 시간이 되기 전에 버스를 타러 가던 프레야는 물 웅덩이를 밟고 질주한 차 때문에 좁은 인도 한 쪽에 주저앉고 말았다. 거대한 물 세례를 피하려다 온 몸에 물을 뒤집어쓴 채로 그만 넘어진 것이다. 건너편 상점의 지붕 밑에서 비를 피하고 서 있던 던컨은 체구가 작은 여성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얼른 달려갔다. 나이 많은 노인인줄 알았는데, 자신의 팔을 붙잡고 일어난 후 얼굴을 보니 젊은 여자였다. 얼굴만 빼고 거의 다 훌쩍 젖은 것이 안쓰러워 자신도 모르

게 바로 근처에 집이 있으니 가서 옷을 말리라고 권했다가, 생판 처음 보는 남자가 집에 가자는 말이 얼마나 위협적으로 들렸을지 뉘엿게 깨달은 던컨은 눈이 황급히 거절하며 괜찮다고 가버리는 여자를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잠시 후, 얼마 떨어지지 않은 벤치에서 버스를 놓치고 한숨만 쉬고 있던 프레야와 다시 만난 던컨은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건넨다. 추위에 벌벌 떠는 프레야에게 던컨은 자신의 두툼한 코트를 입혀주고, 이번에는 프레야도 그의 다정한 도움을 거부하지 않는다. 처음 만났지만 10년 전 이혼한 던컨의 과거와 2년 전 죽은 프레야의 남편, 남은 아이들 이야기까지 꽤 깊은 이야기를 나눈 후, 두 사람은 금새 가까워진다. 새로운 사랑, 가슴 설레게 하는 만남은 프레야가 바쁜 생활 속에서 기대하고 꿈꾸던 미래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을 정도로 비현실적인 일이었다. 제대로 꾸미고, 치장을 할 시간엔커녕 침착하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도 없는 삶에 사랑이라니? 하지만 그 사랑이 이렇게 우연히, 예정된 일처럼 자연스럽게 시작되고 있었다.

두세 번 차와 식사를 함께하며 데이트를 즐긴 두 사람은 단시간에 서로에게 깊이 끌린다. 전처와 이혼 후 온라인 데이트 업체에 가입하여 새로운 만남을 시도했던 던컨은 과장과 거짓을 밥 먹듯 하는 여자들에게 좀 질려 있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싫은 건 싫다고 말하면 될 것을 취미나 직업도 속이고 나이까지 속이는 여자들을 연이어 만난 후로 온라인에서 제대로 된 인연을 찾이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 상태였다. 그런 던컨에게 아이가 셋인데도 소녀 느낌이 남아 있는 프레야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자주 챙겨주고 싶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았다.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낯선 사람에게 호감을 가질 리 없는 프레야의 아이들과 죽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머느리를 흘리는 자가 나타날 거라 확신하던 프레야의 시어머니였다.

막내 소피의 여섯 살 생일에 처음으로 프레야의 집에 초대 받은 던컨은 악어 인형으로 소피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했지만, 할머니의 과민한 걱정에서 달려온 장남 윌과 둘째 잭은 그를 노골적으로 경계했다. 집안 곳곳, 벽마다 걸린 루벤의 사진과 그의 흔적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이 가족에게 프레야의 남편이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 남아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하지만 프레야의 말처럼, 그리고 두 아들들이 믿는 것처럼 오지를 찾아 다니며 자선 활동을 벌이던 루벤이 것처럼 완벽하고 흠 잡을 곳 하나 없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던컨의 눈에 들어온다. 루벤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프레야와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던컨은 모두가 그리워하는 루벤이 어떤 존재였는지,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무런 악의 없이 시작한 뒷조사는 충격적인 진실로 이어지고, 던컨은 프레야의 가족을 무너뜨릴지 모르는 진실을 손에 쥔 채 기로에 선다. 그러나 가족들이 우상처럼 떠 받아들여온 존재, 루벤이 낯선 도시에서 낯선 젊은 여자와 함께 버젓이 살아 있는 장면이 프레야와 아이들의 눈 앞에 펼쳐지면서 던컨이 두려워한 진실, 치졸한 배신과 거짓으로 점철된 못난 가정의 비밀은 모두 드러난다. 놀라운 비밀이 드러나는 과정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식으로 전개되는 흥미로운 소설이다.

<저자 소개>

제인 베일리(Jane Bailey)는 데뷔작 <Dillon's Prize>를 시작으로 여섯 편의 소설, 한 편의 시집을 냈다. 첼튼햄 축제 등 저소득층 아이들의 글쓰기를 장려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추가 업데이트

제목 : THE SEVEN OR EIGHT DEATHS OF STELLA FORTUNA

가제 : 스텔라 포르투나의 여덟 번 인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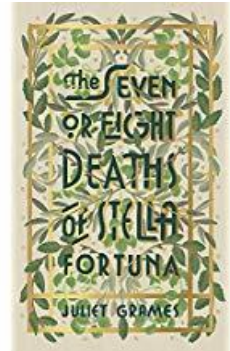
저자 : Juliet Grames

출판사: HarperCollins

발행일: 2019년 봄

분량 : 464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일반



★ HarperCollins Lead Pick for summer 2019로 선정!

★ 영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리투아니아 판권 계약

스텔라 이모는 다른 모든 가족들로부터 외면 받는 존재다. 지금은 100세이지만, 일흔에 당한 사고 때문에 괴팍하고 걸핏하면 성질을 부리는 데다 고집을 피우는 성마른 노인이 되고 말았다. 그 사건은 일명 ‘가지 사건’이었다. 가족들이 ‘그 사고’라 부르는 일을 당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사들의 말에도 가까스로 살아 났지만, 변해버린 성격 때문에 자매인 티나 이모와도 인연을 끊어버리게 되었다. 수십년을 가족들로부터 은근히 비난 받는 사람이 바로 스텔라 이모였다.

“너네 이모가 ‘가지 공격 사건’ 때문에 죽을 뻔한 건 알고 있지?” 티나 이모의 입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이 말 한 마디에, 조카는 스텔라 이모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파헤치기 시작한다. 사건 이전 스텔라 이모의 삶, 변해버리기 이전의 시간들을 알게 된 조카는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고 스스로도 믿기 힘든 100년의 자취를 기록하기로 결심한다.

일곱 번, 혹은 여덟 번 죽을 뻔했지만 살아 남은 사람, 마지막 사고 이후 한 몸처럼 지내던 여동생과 두 번 다시 말을 섞지 않은 노인, 엄마에게 ‘저주 받은 아이’로 낙인 찍혀버린 스텔라 포르투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썼다는 설명으로 시작되는 이 소설은 그 여덟 번의 사고를 각 장마다 순서대로 살펴본다. 스텔라가 기적처럼 이겨낸 치명적인 사고 이야기 속에는 전쟁과 이민, 폭력으로 얼룩진 한 사람과 가족들의 관계가 생생하게 담겨 있다.

지금은 미국 코네티컷 주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서로 4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두 집에 각각 살고 있지만, 스텔라와 티나의 고향은 머나먼 이탈리아에서도 칼라브리아 주의 산 속 마을 레볼리였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모두 겪는 동안 가난은 자매의 집안 형편을 점점 더 깊어 먹었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 만큼 가난에 시달리다 결국 아버지는 돈을 벌어 오겠다며 남미로 떠났다. 엄마와 함께 버려진 스텔라와 티나는 다니던 학교까지 억지로 그만두고 올리브 농장에서 일을 해야 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늘 강인하고 생기가 넘치는 동시에 어린 나이에도 카리스마가 넘쳤던 스텔라는 양전하고 고분고분하면서 성실한 여동생 티나를 극진히 돌보았고 티나도 언니를 누구보다 의지했다.

하지만 아무리 굳센 스텔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불운한 사고가 어릴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비극이 시작됐다. 지글지글 끓는 식용유에 심하게 데여 화상을 입은 일부터 시작하여 큰 딸에게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자 엄마의 머릿속에 악마의 저주가 내려진 것이 틀림 없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사악한 존재의 눈 밖에 나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여긴 엄마의 말처럼 살면서 목숨을 건 수술을 두 번이나 받고 뇌출혈로 뇌염을 잘라내는 수술까지 받은데다 질식 두드러 맞아 뇌진탕을 겪고, 성폭행을 당하고, 질식사할 뻔하고 의도치 않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뻔한 스텔라의 연이은 사고는 정말 악마의 소행일까?

이모의 삶을 기록한 조카인 이 소설의 화자는, 가족들은 모두 스텔라 이모의 불운에 초점을 맞추지만 보통 그런 사고 한 번이면 진작에 목숨을 잃었을 일을 여덟 번이나 견뎌낸 것은 어마어마한 행운이 아니냐고 반박한다. 그렇다면 마지막 사건,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난 뒤에 스텔라 이모가 티나 이모를 비롯한 가족들을 모두 멀리하고 자신만의 세상 속에 갇혀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90세가 넘는 티나 이모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텅 빈 집에 혼자 살면서 거의 하루 종일 길 건너 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있다.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으려는 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늘 건너다보고, 언니가 오전에 별을 찌러 나왔다가 잠깐 몸을 누이러 방으로 들어가면 재빨리 점심을 만들어서 언니네 뒷문으로 들어가 부엌에 몰래 냄비를 놓고 나온다. 그것도 매일! 스텔라 이모는 일어나서 누가 만들어놓은 줄도 모르는 그 음식을 먹고, 다른 조카가 냄비를 수거해서 티나 이모에게 가져다 주는 일이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다. 두 자매는 태어나 24년을 한 방에서 살았고 결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할 때 비로소 다른 집에 살았다. 둘 다 결혼한 후에도 기어이 같은 동네에 집을 얻어서 매 끼니를 거의 함께 하고 동네방네 오가는 소문을 함께 속닥대면서 40년을 붙어 지내던 언니와 동생이 어쩌다 이렇게 서로 아는 척도 할 수 없는 사이가 됐을까? 두 할머니의 조카는 스텔라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쫓겨 숨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가족들이 ‘미친 스텔라’라고 조롱하듯 불러 대는 불쌍한 이모의 삶에 얼마나 많은 비밀과 고통이 뭉쳐져 있는지 그녀의 생사를 오간 사고들을 토대로 하나씩 보여준다.

가부장적 사회의 폐해와 씻을 수 없는 전쟁의 공포와 상처 그리고 이민자의 고통을, 오직 가족만이 선사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랑과 헌신의 가치와 함께 그린 따뜻한 이야기다. 작가의 맛깔 나는 표현과 사건 기록처럼 여덟 건의 사고를 나열한 구성은 읽는 내내 흥미를 유발하고 화자인 조카가 실제 역사가이고 스텔라 포르투나가 실존 인물인 것처럼 느껴지는 또 다른 재미가 있다.

<저자 소개>

줄리엣 그레임스(Juliet Grames)는 Soho Press의 부발행인으로 일하면서 평단의 호평을 받은 범죄 소설들을 편집했다. ‘Words Without Borders’에도 글을 기고해 왔으며 ‘Anderbro’에서 공개된 글 ‘Monologue’는 글래스 여성 상(Glass Woman Prize)을 수상하고 오픈시티 트로피(OpenCity Trophy)에서 2위를 차지했다.

Updates:

THE SEVEN OR EIGHT DEATHS OF STELLA FORTUNA

Juliet Grames



As the year draws quickly to a close, I wanted to share with you above the absolutely gorgeous jacket Hodder have chosen for the British edition of *The Seven or Eight Deaths of Stella Fortuna* by Juliet Grames. Hodder's catalog copy is below:

Over a hundred years ago, in a mountainside village in Calabria, Italy, from a union between two young people with little to their names, a baby was born. Beautiful and adored by her mother, baby Mariastella Fortuna, known as Stella, seemed promised a happy destiny.

But if Stella Fortuna means 'lucky star,' then life must have a funny sense of humour.

Everybody in the Fortuna family knows the story of how Stella, once the most beautiful girl in the village of Ievoli, the unconventional, fiercely independent young woman who refused to learn to cook and who swore she would never marry, has escaped death time and time ag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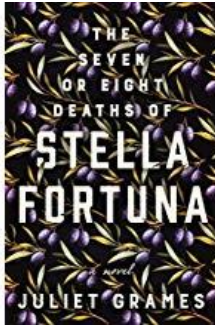
From her childhood in Italy, to her adulthood in America, death has seemed to pursue Stella. She has been burned, eviscerated and bludgeoned; she has choked, nearly fallen out of a window, and on one occasion, her life was only saved by a typo.

However, even the best-known stories still have secrets to reveal . . . and even after a century, Stella's is no exception.

No woman survives seven or eight deaths without a reason. So, how did she?

In a tale which spans nine decades, two continents, and one family's darkest, deepest-buried truths, the answer awaits. . .

As a reminder, Ecco's US jacket is as follows:



Lots lots lots more to come on this wonderful novel in the new year but before we headed off on holiday we wanted you to see the latest. Thanks for sharing this Juliet's publishers and looking forward to hopefully adding to this list in the new year!

Hodder (*UK & BC*), Droemer (*Germany*), Luitingh-Sijthoff (*Netherlands*), Presses de la Cite (*France*), Eksmo (*Russia*), HarperCollins (*Italy*), Otwarte (*Poland*), Alianza de Novelas (*World Spanish*), Alma Littera (*Lithuania*).

NON-FICTION

제목: 125 WAYS TO MEET THE LOVE OF YOUR LIFE

가제: 운명의 짝을 찾는 125가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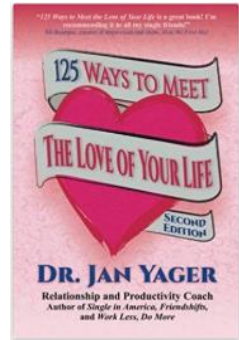
저자: Jan Yager

출판사: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발행일: 2016년 5월 6일

분량: 206 페이지

장르: 결혼/가족



- * “홀로 사는 것에 지친 사람, 남은 생애를 함께 할 특별한 짝을 만날 준비가 된 모든 남녀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만한 책” - 「미드웨스트 북 리뷰」
- * “그 동안 할 수 있는 시도는 다 해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 책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득 얻을 수 있다” -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강연자 수전 개디스(Susanne Gaddis)
- * 한국 독자를 위한 저자의 특별한 서문 추가!

대인관계, 생산성 향상 전문가로 잘 알려진 저자가 11개 언어로 번역되며 큰 호응을 얻은 저서 『125 WAYS TO MEET THE LOVE OF YOUR LIFE (국내 번역서 제목 ‘내 인생의 사랑 찾는 법 125, 2004)』를 업데이트한 개정판을 발표했다.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방법도 크게 바뀌고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곧바로 대면하기보다 온라인으로 서로의 정보를 먼저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늘어난 것을 반영하는 한편, 저자가 직접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일생의 짝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도 담은 이번 개정판은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감안한 별도의 서문도 추가되어 한국 독자들에게 대한 저자의 깊은 관심을 느낄 수 있다.

저자는 3년 만에 끝난 첫 결혼 이후, 오랜 독신 생활 끝에 개인 광고를 통해 만난 두 번째 남편과 31년째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이 인생을 더 충만하게 만들어준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이야기한다. 이 확신이 인생의 동반자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팁을 제공하고 싶다는 소망으로 이어졌다. 저자의 바람대로 이 책에는 결혼에 국한되지 않고 가볍게 누군가를 만나 데이트를 하는 것부터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는 단계까지 두루 포괄하여 마음을 나누고 일상을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개인의 가치관, 관계에서 얻고자 하는 목표에 꼭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125가지 방법이 소개된다.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된다. 1부 ‘준비’에서는 저자가 개발한 설문지를 통해 독자가 어떤 파트너를 원하는지 직접 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110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에는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한 발 물러나서 확인하고 자신은 물론 감정을 나누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질문들이 담겨 있다. 저자가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에 이른 흥미진진한 이야기도 소개된다. 2부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찾는 125가지 방법이 총 9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제시된다.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 평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나 직장 등의 생활 공간, 원하는 조건을 명확히 밝힌 개인 광고 등 다양하고 참신한 방식으로 보다 적극적인 탐색에 나서는 방법과 함께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문제를 경험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들도 꼼꼼하게 제시된다. 마지막 3부에서는 앞의 팁들을 활용하여 ‘이 사람이다’ 싶은 짝을 만났다면 그 관계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설명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확신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은 경우에도, 원하던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사랑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저자의 조언과 함께 다시 용기를 내어 새로운 탐색에 나서는 방법이 소개된다. 그리고 정말로 확신이 굳게 드는 짝을 만났다면 그저 데이트를 하든, 결혼을 하든 그 관계가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게끔 가꾸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준다.

총 202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인터뷰와 철저한 조사, 대인관계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저자가 관찰하고 만난 사람들, 커플들에 관한 정보와 지식이 축적된 유용한 정보서다.

<목차>

한국어 번역판에 덧붙이는 말

제 2판 서문

1부. 준비

1. 이 책에 담긴 정보
2. 사랑 이야기
3. 보다 생산적으로 탐색하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
4. 탐색 과정에서 안전을 지키려면
5. 탐색 준비는 어떻게 할까
6. 여러분 스스로를 알아야 한다

2부. 탐색 시작: 일생의 짝을 찾아보자

7. 온라인 데이트에 관하여(1-18)
8. 학교, 직장, 사업장에서(19-34)
9. 개인 광고(지면 광고 또는 온라인 광고) (35-40) (이하 생략, 총 15장까지 구성)

3부. 다음 단계 (16-17장)

<저자 소개>

젠 예거(Jan Yager)는 사회학자로 대인관계 코치, 생산성 전문가, 시간관리 전문가로 활동하며 수많은 저서를 발표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SINGLE IN AMERICA』와 28개 언어로 번역된 『WHEN FRIENDSHIP HURTS』 등이 있다.

제목 : THE NEW RIGHT

가제 : 뉴라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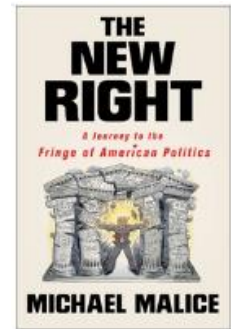
저자 : Michael Malice

출판사: All Points Books

발행일: 2019년 5월 14일

분량 : 320쪽

장르 : 정치



- ★ FOX 채널의 인기 프로그램 「Tucker Carlson Tonight」 등의 유명 출연자가 직접 쓴 저서
- ★ “저자는 정치계의 윌리 웡카다!” – 정치 토크쇼 ‘더 루빈 리포트’의 진행자 데이브 루빈
- ★ “모두가 이 책을 읽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도 꼭 읽어야 한다.” – 뉴스 프로그램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의 진행자 잭 포소비엑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지도 2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어떻게 그가 세계 최강국의 리더가 될 수 있었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의견의 바탕에는 세계 정상들의 점잖고 침착한 일반적인 이미지와 상반되는 트럼프의 개인적인 특징이 깔려 있지만,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난 약점에도 불구하고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강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신 우익’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방송인으로 잘 알려진 저자는 하나의 운동으로 확산되어 도널드 트럼프를 당선 시킨 신 우익의 모든 것을 이 책에서 풀어본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라 주장하는 이 새로운 정치 운동이 어디서부터, 그리고 왜 시작되었는지 추적하고, 미국의 정치계를 바꿔놓을 만큼 큰 힘을 얻게 된 배경을 분석한다.

뉴라이트로도 불리는 신 우익에 대하여 저자는 ‘진보주의에 반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라 설명한다. 또한 신 우익들은 진보주의자라는, ‘평등주의 원칙을 위해 헌신하는 종교적 근본주의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세계주의라는 헤게모니를 통해 세상에 전체주의가 퍼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으킨 운동이라고 정의한다. 특정 지역의 사람들끼리 단지 가까운 곳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동참하는 운동이 아니며, 오히려 서로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도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네트워크를 이룬 형태에 더 가깝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는 비교적 역사가 짧고 새로운 축에 속하고, 기존의 체제를 대체할 무언가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주류를 이룬 정치적 사상에 비해 ‘주변부’에 해당한다. 저자는 이러한 특징이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점이라 말하지만, 동시에 다소 정신 나간 소리로 비춰질 위험도 크다고 이야기한다. 때로는 놀라운 변화가 비정상적인 혼란으로 보일 수 있고, 익숙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미국의 대선 운동이 한창이던 2016년, 국가주의와 포퓰리즘에 반대하는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출신의 보수주의자들이 진보주의에 반대하며 뉴욕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것 역시

그와 같은 혼란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마침내 세상에 자신의 생각을 크게 외친 이 신 우익의 목소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무려 14명이나 되는 직업 정치인들을 모두 누르고 대선 후보로 선정되는 핵심 엔진이 되었다. 또한 그 여세를 몰아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정당으로 여겨지던 당시의 민주당을 누르고 백악관에 들어가는 쾌거를 이루었다. 저자는 그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루 아침에 무슨 영감을 얻거나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실 수십 년 전부터 조용히 결집된 사람들이라 설명하고, 신 우익 운동의 주축이 된 이들의 배경과 이데올로기의 뿌리, 정치적인 생각, 그리고 신 우익이 바라보는 미래와 목표는 무엇인지 상세히 전한다.

신 우익의 등장과 거센 영향력은 미국의 정치사에서 가장 극심한 분열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쉽사리 사라질 흐름이 아니며, 대다수가 민주주의에 해가 된다고 여기는 신 우익의 핵심적인 생각은 전체적으로 볼 때 정치에 새로운 요소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저자는 전망한다. 저자는 신 우익의 형성 과정과 현재, 그리고 향후의 영향력을 그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의 시각이 아닌 자유주의적 저널리스트의 시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한다. 미국 정치의 미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읽어 볼 만한 책이다.

<목차>

1. 환영해요
 2. 경계에 숨어 있는 사람
 3. 파업
 4. 밈(meme)의 마법 같은 힘은 진짜였다
 5. 밀폐
 6. 민주주의와의 대립
 7. 펜트하우스의 전설
 8. 개빈 맥긴스의 죄
 9. 빨리 도망쳐
 10. 두 번째 삶
- (이하 생략, 총 15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마이클 맬리스(Michael Malice)는 저술가, 기고가, 방송인으로 문화, 정치 관련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해 왔다. 「옵저버」지에 “Town Called Malice”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해 왔다. 저서로는 『Dear Reader: The Unauthorized Autobiography of Kim Jong Il』 등이 있다.

제목 : THE WAR FOR CHINA'S WALLET

가제 : 중국의 지갑과 세계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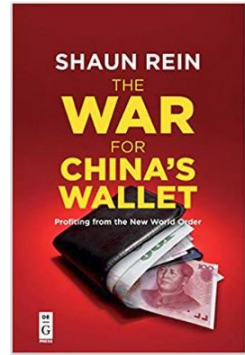
저자 : Shaun Rein

출판사: De G Pr

발행일: 2017년 12월 4일

분량 : 250 페이지

장르 : 경제



- *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경제를 당근과 채찍으로 정교하게 활용하는 중국의 전략을 내부자의 시선으로 밝힌 책. 정보가 가득하면서도 재미 있게 읽을 수 있다” – 하버드 대학교 정부학 교수, 엘리자베스 페리(Elizabeth Perry)
- * “분석과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중국이 세계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형성에 경제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한 책. 언론과 학계에서 간략하게만 다뤄온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다” –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 드와이트 H. 퍼킨스(Dwight H. Perkins)

경제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한 후, 중국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최대 또는 두 번째로 거래 규모가 큰 교역국으로 자리잡았다. 스타벅스, 애플, 나이키를 비롯한 포춘 500 기업들의 두 번째로 거대한 시장이 된 중국은 할리우드 산업 전체의 성장 동력으로도 여겨진다. 그런데 이 엄청난 교역과 경제적인 관계 뒤에는 오직 중국만이 휘두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숨겨져 있다. ‘꿀’에 비유할 수 있을 만큼 일단 진입해서 성공하기만 하면 세계 어느 시장에서도 얻지 못할 거대한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이 중국 시장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정치적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큰 이윤이 보장된 시장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한 타격을 가져올 ‘보복’을 당할 수 있다. 중국 경제 전문가인 저자는 ‘지갑’을 국제 관계의 유익한 도구이자 수단으로 교묘하게 활용해온 중국의 전략을 오랜 시간 연구해온 결과와 함께 정부 관계자, 사업가 수백 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전 세계 기업이 중국의 해외투자계획을 어떻게 활용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국가가 정한 방향에 그대로 따르는 중국 소비자들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이 책에서 상세히 소개한다.

2017년 초, 대선의 열기가 뜨겁던 시기에 한국의 한 대선주자 선거캠프로부터 사드 배치 이후 냉랭해질 대로 냉랭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되살릴 방법을 좀 마련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것이 그 시작이었다고 설명하였다. 당시 해당 캠프에서 시진핑 주석과 대선후보의 독대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할 만큼 절박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중국이 한국에 내린 경제적인 보복 조치가 한국 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었는지 확인했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중국이 경제 강국으로 떠오르고, 경제력을 권력으로 활용한 후 세계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도 공통적으로 목격된 전략이다. 필요에 따라 때로는 큰 상으로, 때로는 냉혹한 벌로 나라의 지갑을 활용하는 중국의 치밀한 전략이 국가의 정치적 목표와 요구에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

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서유럽을 대상으로 공산주의 확대를 막기 위해 실시한 마셜 플랜이나 일본이 1960년대부터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서방 국가의 원조에만 기대지 않도록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준 것도 비슷한 전략에 해당한다. 하지만 저자가 말하는 중국의 전략에는 지금까지 어떠한 국가도 채택하지 않은 독특한 기준과 규칙이 존재하며 이를 제대로 파악해야 중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서방 국가들이 무모하다, 혹은 당혹스럽다고 평가하는 중국의 경제 전략은 이 책에서 총 두 부분으로 설명된다. 1부에서는 먼저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정치적 입지와 중국 정부가 세계 각국을 대하는 태도, 시선이 그 나라 기업의 성장과 경제적 위기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이어 2부에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 과정과 소비, 혁신을 적극 수용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존의 세계시장 질서를 단시간에 무너뜨린 중국 소비자들의 힘과 각국 기업, 정부가 중국의 투자를 확보하고 중국 기업, 소비자들과 원만하게 교역을 이어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유념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성장 엔진으로 자리매김한 중국 시장에서 꾸준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유익한 경제서다.

<목차>

- 1장. 중국의 경제적 망치
- 2장. 망치와 당근
- 3장. 미국의 권력 공백과 새로운 세계 질서: ‘일대일로’ 전략과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AIIB)
- 4장. 혁신과 국영 경제
- 5장. 중국의 해외투자: 문화의 충돌
- 6장. 중국 소비자의 두려움과 행복, 이들을 이해하는 법
- 7장. 전 세계의 새로운 차이나타운: 낡고 허름한 동네부터 호화로운 거주지까지
- 8장. 중국의 관광산업: CMR이 개발한 중국의 ‘모래시계 쇼핑 모형’
- 9장. 결론 - 2017년 10월

<저자 소개>

숀 레인(Shaun Rein)은 중국을 겨냥한 마케팅 업체 China Market Research Group(CMR)의 창립자 겸 책임자다. 맥길 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중국 경제를 주 전공으로 공부하여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제로 한 여러 강연에 초청되어 왔으며 CNN, BBC, NPR, CNBC 등 다양한 방송 매체에 출연했다.

제목 : RADICAL RESPONSIBILITY

가제 : 근본적인 책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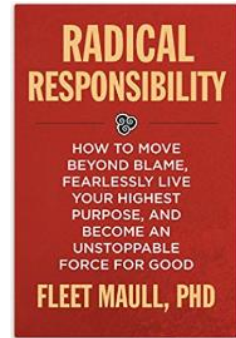
저자 : Fleet Maull

출판사: Sounds True

발행일: 2019년 5월 14일

분량 : 266 쪽

장르 : 자기계발



*** 대인관계 신경생물학 분야의 전문가, 유명 저자 대니얼 시겔(Daniel J. Siegel)의 서문 포함**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고들 이야기하고, 가끔은 그 말이 ‘진짜구나,’하고 와 닿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잠도 못 이룰 정도로 걱정하고, 신경을 곤두서게 만든 일이 구체적으로 해결된 건 아무 것도 없지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로 완전히 바뀔 수도 있음을 문득 깨달을 때가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렇게 넘길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당장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솟구칠 때 마음을 편히 가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감방에서 인생이 다 끝날 수도 있었던 불행한 시기를 겪은 저자는 그 처절했던 시절, 좁디 좁은 감옥에 갇혀 희망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할 만한 환경에서 ‘마음의 변화’를 스스로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우리 개개인이 지닌 가능성과 역량을 모조리 묶어둘 수는 없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자아의 강력한 힘과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감정은 모두 ‘선택’이 가능한 영역이며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정보를 처리하고, 반응하고, 그에 따른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 개인의 삶, 더 길게는 오랜 세월 인간이 진화하고 생존하면서 축적된 전략이 반영되어 있음을 제대로 인지한다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이 과정을 직접 제어할 수 있다. 저자는 이처럼 자신의 내적 평화와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근본적인 책임’지는 수준에 이를 때 비로소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억누른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자기 자신의 마음과 세상과의 관계를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리더’가 되는 것, 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더 긍정적으로 성장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제시된다.

***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 자신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단계적인 접근법을 보여준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주변 환경이 받쳐주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남 탓, 환경 탓, 심지어 무능하고 무력한 자신을 탓하는 것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활용하지만, 이는 절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저자는 자신이든 다른 대상이든 ‘비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할 수 있는 일’에 주목하고 연민의 감정을 키우는 동시에 이미 생긴 상처는 빨리 아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어떠한 경우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정확하게 긋는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 책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1부에서는 삶의 ‘근본적 책임감’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인간이

지닌 선한 본성과 마음을 챙기는 것을 기반한 정서적 지능을 중심으로, 이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은 무엇인지 밝힌다. 2부에서는 거듭되는 혼란과 고통에 휩쓸리지 않으며 상황을 명확히 통찰하고 연민을 잃지 않으려면 어떤 난제를 넘어서야 하는지 알아보고, 3부에서는 심리학, 생리학, 신경생물학 분야에서 이야기하는 변화의 원리와 남이 아닌 우리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리더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4부에서는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던 습관을 버리고 근본적 책임감이 삶의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 5부에서는 인간의 마음과 감정에 담긴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토대로 각자가 원하는 인생의 목표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저자는 자신의 진솔한 경험과 더불어, 앉아 있을 자리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명상 방법도 함께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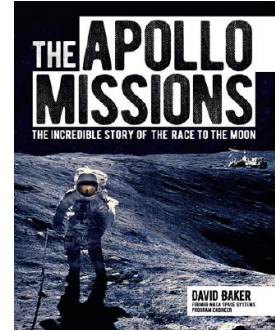
<목차>

- 1부. 시작 - 내면의 선, 마음챙김 기반 감성지능
 - 1장. 아무 것도 잘못된 건 없다
 - 2장. 존재의 힘
 - 3장. 공감적 인식의 힘
- 2부. 도전 - 우리가 존재하는 곳이 삶을 결정한다
 - 4장. 인간의 조건 - 시작은 허약하다
 - 5장. 반복해서 빠지기 쉬운 세 가지 드라마
- 3부. 책임을 지는 것 - ‘나’라는 배의 선장이 되라
 - 6장. 드라마에서 빠져 나오는 법
 - 7장. 내 운명은 내가 책임진다 - 뇌 과학 기초
 - 8장. 구부러지고 폭 파인 길 - 뇌를 성공의 방향으로 재설정하자
- 4부. 근본적인 책임의 길로 (9-12장)
- 5부. 가슴과 마음의 인지, 더 나아갈 길 (13-14장)

<저자 소개>

플릿 마울(Fleet Maul)은 샴발라 인터네셔널(Shambhala International), 젠 피스메이커(Zen Peacemaker) 소속 명상 강사, 컨설턴트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제목 : APOLLO MISSIONS
가제 : 아폴로 탐사의 기록
저자 : David Baker
출판사: Arcturus Publishing
발행일: 2019년 5월 15일
분량 : 192쪽
장르 : 지구과학/천문학



- ★ 2019년 7월로 다가온 아폴로 11호의 인류 최초 달 착륙 50주년을 함께 기념할 수 있는 책
- ★ 아폴로 탐사와 관련된 컬러 사진, 공식 문서 등 풍부한 자료와 우주 탐사기술의 발전 과정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인류의 역사적인 쾌거를 되짚어본 내용

미국의 우주비행사가 하얗고 거대한 우주복을 입고 꼭 사막처럼 보이는 달 표면에 첫 발을 디디는 장면은, 1969년 당시 생중계된 화면을 숨죽이며 지켜본 사람들은 물론 교과서나 각종 자료에서 사진으로만 본 사람들까지 절대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광경으로 기억한다. 땅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면서 손에 닿지 않는 하늘을 동경하다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기술을 만들고, 하늘 너머 지구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 공간과 그곳에 존재하는 또 다른 행성을 다음 목표로 정한 인류는 우주탐사의 첫 번째 목적지로 지구와 가장 가까운 달을 지정했다. 그리고 연이은 실패와 불운한 사고, 서로 ‘최초’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치열한 경쟁 끝에 마침내 불가능할 것 같았던 달 착륙의 꿈도 이루었다. 앞으로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NASA의 역사적인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 엔지니어로 참여한 저자는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 이 쾌거의 첫 구상 단계부터 실현까지, 그리고 인류의 삶 전체에 끼친 영향을 이 책에서 전체적으로 정리한다. ‘1970년이 되기 전에 반드시 달에 도달한다’고 선언한 케네디 대통령의 대담한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땀 흘린 우주과학자들과 우주비행사들의 이야기와 만만치 않은 기술력을 앞세워 미국과 경쟁을 벌인 러시아 우주사업, 온 인류를 숨죽이게 한 암스트롱의 첫 발이 달에 닿기까지의 전 과정이 생생한 사진 자료와 함께 소개된다.

인간이 달에 닿은 것은 단순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도착한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구라는 작고 아름다운 행성이 새카맣고 무서울 만큼 고요한 우주 공간에 둥둥 떠 있는 모습을 처음으로 볼 수 있었던 것도 달에 닿기 위한 우주탐사가 진행된 덕분이었다. 서로 싸우고, 부대끼며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먼 우주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얼마나 작고 작은 우주의 먼지처럼 느껴지는지, 파란 수정구슬 같은 지구는 삶과 죽음에 관한 새로운 시선을 선사했다. 과학적인 성과는 일일이 꼽을 수 없을 정도다. 달에 무사히 착륙할 수 있는 우주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인공위성은 오존층의 존재를 발견한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구를 실시간으로, 이전까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상세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으며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개발로 이어져 인류에 정보화 시대라는 거대한 변화를 몰고 왔다. 암스트롱과 알

드린, 콜린스까지 세 명의 우주비행사를 달에 데려가기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룩한 성과에 그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저자는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우주 개발 사업을 살펴보고, 특히 ‘우주 경쟁’이라 불릴 정도로 치열하게 대립했던 러시아와의 관계가 이제는 450톤 규모의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국경을 초월하여 인류 전체를 위해 함께 연구하는 관계로 바뀌기까지의 흥미로운 이야기도 함께 전한다. 50년 전 지구와 우주에 관한 인류의 인식을 모두 바꿔놓은 달 착륙의 역사는 전례 없는 환경 위기를 맞이한 현재, 또 다시 새로운 관점으로 지구의 운명을 고민해야 하는 현 세대에게 특별한 울림을 줄 것이다. 저자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선례가 없기에 모든 것이 도전이었던 1960년대, 지금 되돌아보면 원시적으로 느껴질 법한 초기 단계의 기술로 우주탐사를 현실로 만든 위대한 사람들의 열정과 재능을 그들과 함께 직접 이 놀라운 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을 통해 더 생생하게 전한다.

<목차>

머리말

1장. 왜 달에 가려고 할까?

2장. 가야만 하는 이유

3장. 긴 여정을 준비하다

4장. 아폴로 호의 등장

5장. 준비

6장. 지구를 떠나

7장. 이 세상 밖에서

8장. 달로 가는 길

9장. ‘독수리가 착륙했다’

10장. ‘작은 한 걸음’

<저자 소개>

데이빗 베이커(David Baker)는 1965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제미니 호, 아폴로 호,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우주탐사, 항공술, 군사 기술 등을 주제로 100편 이상의 저서를 썼다. 현재 영국 행성간협회 소속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며 월간지 「Spaceflight」 매거진의 편집을 맡고 있다.

제목 : THE SEA JOURNAL

가제 : 해상 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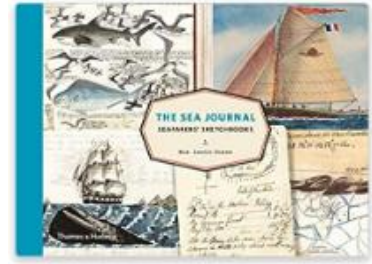
저자 : Huw Lewis-Jones

출판사: Thames and Hudson Ltd

발행일: 2019년 5월 9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역사



*** 새로운 땅, 새로운 기회를 찾아 망망대해로 떠난 사람들이 직접 남긴 항해, 여행 기록과 그림들**

가지 않은 길,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을 향한 호기심은 인류가 이룬 수많은 탐험의 출발점이 되었다. 저 언덕, 저 높은 산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은 눈 앞에 펼쳐진 수평선은 물론 때로는 새카맣게 보일 만큼 깊고 짙은 수면 아래에도 무엇이 있는지 가능할 수 없는 바다에서 더욱 증폭되었을 것이다. 그곳에 가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은 기술적인 발전과 더불어 아직 상상의 영역에 머무른 미지의 세계를 담은 예술 활동과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르기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간 여정의 생생한 기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탐험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연구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수백 년 전, 최첨단 항해, 항법 기술이 전혀 없던 시기에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 일으키는 바다로 용감하게 나아간 사람들이 직접 남긴 기록과 흔적을 보여준다.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 반드시 또 다른 대륙이 있으리라는 확신으로, 혹은 그저 끝이 보이지 않는 수평선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바다로 떠난 여행자들, 선원들이 배 위에서, 낯선 땅의 해안에서 쓴 일기와 편지, 항해일지를 비롯해 생전 처음 본 풍경과 대상과 마주하고 느낀 충격, 기쁨, 고통, 불안감을 묘사한 다채로운 그림과 지도 등 다양한 종류의 기록이 페이지마다 그대로 담겨 있다. 얼어 붙은 극지의 황무지부터 적도 아래 저 먼 남태평양의 섬들에 이르기까지 드넓은 대양 곳곳에서 남겨진 이 기록에는 이들이 바다 위에서 겪은 무수한 사건과 고생담, 기겁할 만큼 놀라고 즐거웠던 순간들과 더불어 바다 한가운데서 막닥뜨린 신기한 해양 동식물과 지금까지도 진위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기묘한 존재에 관한 목격담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책은 각 장마다 기록을 남긴 사람의 이름과 그가 몇 년도에 어떤 곳을 항해했는가에 관한 짧막한 소개로 시작되며 탐험의 방식이나 주제가 대략적으로 비슷한 기록들끼리 한데 엮여 저자를 비롯한 탐험 분야 전문가들, 바다에서 실제로 평생을 보낸 사람들의 서문과 함께 구성된다.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탐험에 나선 관리부터 그저 바다가 좋아 선원이 된 보통 사람들, 요리사, 고래잡이, 의사, 예술가, 탐험가 등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목적으로 배에 올라 각자 독특한 방식으로 남긴 기록은 흔들리는 배 위에서 고적거렸을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느껴져 페이지마다 눈길을 사로 잡는다. 갑판 위에서 바로 이메일을 보내고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고 위성이 제공하는 정보로 배의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현대에도 뱃사람들, 배에 오른 사람들은

수백 년 전, 펜에 일일이 잉크를 묻혀 낡은 종이에 휘갈겨서 기록을 남겨야 했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망망대해를 마주하는 만큼, 바다 위에서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감각이 자연히 깨어나 특별한 기록을 남기게 된다는 흥미로운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탐험은 인간의 가장 특별한 기능인 상상력과 모든 감각을 일깨우는 경험이 만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매력적인 스케치와 그림, 글로 이루어진 바다 탐험가들의 흔적을 통해 보여주는 모음집이며, 바다 위에서 탄생한, 오직 바다 위였기에 가능했던 인간의 창의적 활동과 그 결과로 탄생한 귀중한 예술 작품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 아직도 지구 전체의 해양 중 인간의 발길이 닿은 곳은 15 퍼센트에 불과하다는 놀라운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이 작은 지구에는 탐험해야 할 곳이 무궁무진하며 이 책에 담긴 기록들은 결코 과거의 유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목차>

서문. 우리는 모두 선원이다 - 돈 월시(Don Walsh)
머리말. 알려지지 않은 바다 - 휴 루이스 존스
배 위에 남은 스케치북
그냥 뛰어 들어 - 로빈 녹스 존스턴(Robin Knox-Johnston)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닌 사람들 - 로즈 세비지(Roz Savage)
예측할 수 없는 항해 - 스파이더 앤더슨(Spider Anderson)
다시 돌아간 바다 - 아비드 푸크스(Arved Fuchs)
막다른 길 - 필립 마스덴(Philip Marsden)

<저자 소개>

휴 루이스 존스(Huw Lewis-Jones)는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탐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이자 예술 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영국 국립해양박물관과 스캇 폴라 리서치 연구소에서 큐레이터로 일한 경력이 있다. 현재는 탐험과 시각예술에 관한 저술 활동과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는 『Arctic』, 『Ocean Portraits』, 『In Search of the South Pole』 등이 있다.

